



보도자료

म्पा निर्माणे ! यादक नेप्या भी

보도시점 2023. 12. 15.(금) 12:00 배포 2023. 12. 14.(목) 15: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2-366-7315)
			주무관	이혜선 (042-366-7320)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방식(story—telling) 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를 발긴 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은 인구, 노동, 주거, 주관적 웰빙 등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 '주요 동향' 1편과 '주요 이슈'에 관한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16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은 전체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특성과 최근의 주요 이슈인 비혼 동거, 디지털 리터러시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산업재해와 고령자 안전사고 등 우리 사회의 현황과 변화를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와 시기가 상이하오니, 결과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지표 누리 홈페이지(http://index.go.kr)에 공표 이후 게시합니다.

목 차

□「한국의 사회동향 2023」요약
□「한국의 사회동향 2023」주요 결과
I.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1.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Ⅱ. 주거, 소득·소비·자산 영역 4.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 14 5.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6
 Ⅲ. 건강, 교육·훈련, 노동, 범죄·안전 영역 6.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 18 7.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 20 8.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 22 9.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 24
IV. 여가, 주관적 웰빙 영역 10.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
□ 부록 ◎「한국의 사회동향 2023」영역별 논문제목 및 집필진 3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요약



■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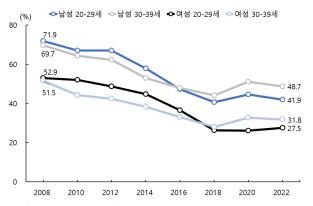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특히 '08~'22년 사이 20대 남성은 30.0%p, 여성은 25.4%p 감소함

[9~10page]

- □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낮음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녀 모두 30대보다 20대의 감소폭이 큼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08년 대비 '22년 증감): 30대(남 21.0%p, 여 19.7%p), 20대(남 30.0%p, 여 25.4%p)
- □ '22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특히 60대 이상 에서 남성 74.9%, 여성 68.7%로 50대(남 60.0%, 여 45.5%)보다도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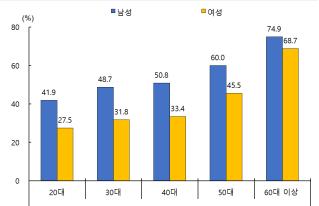
성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성 및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20~30대의 동거와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15~'20년 사이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으며,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54.4%로 높음

[11page]

- □ 20~30대의 독신/동거/무자녀/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증가 추세로, '15~'20년 사이 독신은 8.6%p, 동거 14.7%p, 무자녀 16.4%p, 비혼출산 9.5%p 증가
 - '20년 독신, 동거,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 미만인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4.4%로 높은 편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며, '그렇다'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는 매우 낮으나 '13년 대비 소폭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는 외국인 이민 노동자보다 더 낮음

[12~13page]

-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못함'의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13년 62.1% → '22년 55.9%), 직장동료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13년 7.9% → '22년 14.0%)은 증가 추세임
- □ 외국인 이민·노동자에 대한 '수용못함' 비율은 '16년 7.1%에서 '22년 10.0%로 증가 하였으며, 직장동료로의 포용은 '13년 29.4%에서 '22년 42.3%로 증가 추세임
 - 외국인 이민·노동자를 이웃/직장동료/친구로의 포용 비율은 '22년 88.7%임
 - 반면, 북하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는 외국인 이민 · 노동자보다 낮아 '수용못함'이 '22년 22.2%였으며, 이웃/직장동료/친구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7.1**%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의 반지하/지하/옥상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도 낮은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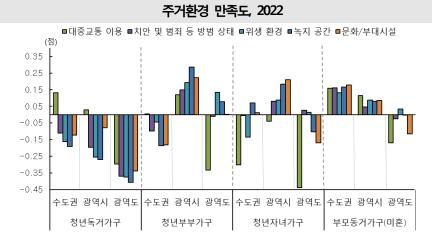
[14~15page]

□ 반지하/지하/옥상의 거주 비율은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가 3.24%로 가장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부부가구와 부모동거가구도 1% 이상임

주택 위치별 비율(%), 2022													
	청년독거가구			쳉	청년부부가구			청년자녀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반지하/지하 옥상(옥탑)	3.24	0.09	0.88	1.24	-	-	0.22	-	-	1.05	0.03	0.07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 □ 청년독거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광역도 지역 거주 청년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낮음



주: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 항목의 청년가구유형 및 지역별 평균점수(5점 만점)를 각 항목별 평균점수의 차이로 계산한 것으로 (-) 값은 해당 항목의 평균값보다 낮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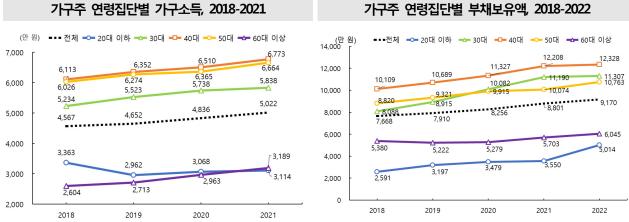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18~'21년 기간 동안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감소하였고, 부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기했으며,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음

[16~17page]

- □ (소득) 전체 가구소득은 '18년 4,567만 원에서 '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함
 - * '18년 대비 '21년 소득 증감률: **20대 이하(-7.4%)**, 30대(11.5%), 40대(10.8%), 50대(10.6%), 60대 이상(22.5%)

- □ (부채)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져, 특히 20대 이하의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93.5%임
 - 30대는 '18년 8,088만 원에서 '22년 11,307만 원으로 증가해 40대 다음으로 높음
 - *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감률: **20대 이하(93.5%)**, 30대(39.8%), 40대(22.0%), 50대(22.0%), 60대 이상(12.4%)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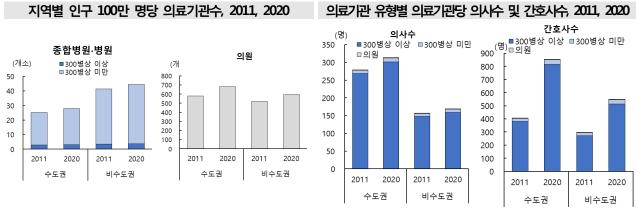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Ⅲ 건강, 교육·훈련, 노동, 범죄·안전 영역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병원수와 병상수가 많지만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적은 편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비수도권이 적으며,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18~19page]

- □ '20년 종합병원과 병원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고, 의원은 수도권이 더 많은 편이나,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는 수도권에서 월등히 높음
 -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고,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됨
 - * 소이청소년과(인구 100만명당): 수도권('11년 224.6개→'20년 293.9개), 비수도권('11년 161.8개→'20년 198.6개)



주 :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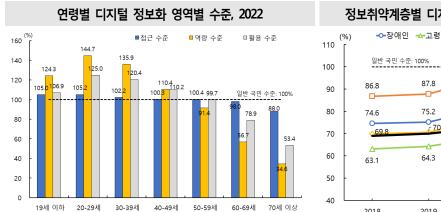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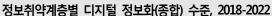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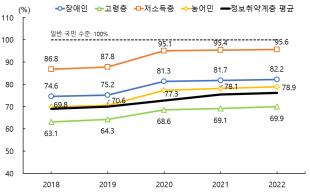
디지털 정보화 이용 능력은 '접근' 수준보다 '역량' 수준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고령층과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20~21page]

- □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40대 이하는 일반국민 수준을 상회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고, 특히 역량 수준이 낮음
 - ㅇ 정보화의 '접근' 수준은 70세 이상에서 일반국민의 88%로 높은 편이나, 이용 능력인 '역량' 수준은 60~69세 56.7%, 70세 이상은 34.6%로 낮음
- □ (정보취약계층) '22년 55세 이상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평균 대비 69.9%로 **가장 낮고**, 농어민(78.9%), 장애인(82.2%), 저소득층(95.6%) 순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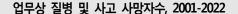
- 주: 1)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2) 인프라 및 기기보유 여부를 '접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은 '역량', 인터넷 이용률/서비스 다양성/인터넷 심화활동을 '활용'으로 정의함
 - 3)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4) 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은 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은 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은 전국 만 7~74세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은 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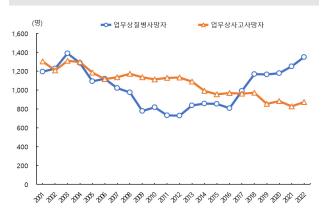
연령별 산업재해 시망자는 40대 이하에서는 감소, 60대 이상에서는 증가 추세,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17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사고사망자는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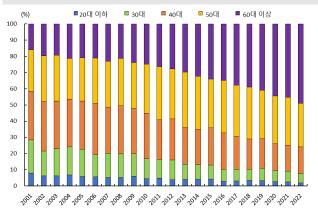
[22~23page]

- □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은 '01년 2.6명에서 '22년 1.1명으로 감소
 - (연령) 재해 사망자는 40대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 60대 이상에서는 증가 추세
 - * 재해 사망자('01년 → '20년): 20대 이하(7.9% → 2.0%), 30대(20.5% → 5.7%), 40대(30.0%→16.6%), 50대(25.5%→26.8%), 60대 이상(16.0%→49.0%)
 - 질병사망자는 '17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사고사망자는 '01년 이후 감소 추세
 -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16년 44.1%에서 '22년 62.9%로 높아짐에 따라 질병사망자수도 증가 추세



산업재해 사망자의 연령구성, 2001-2022





주: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낙상에 의한 시망률은 65세 이상에서 최근 증가 추세이며 고령일수록 더 심각함 고령자 교통사고 시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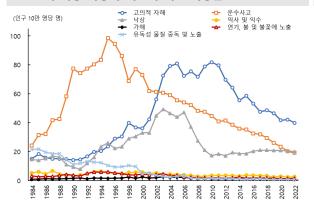
[24~25page]

- □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에서 낙상에 의한 사망률은 최근 증가 추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
 - * 사망의 외인 사망률(10만 명당: 전체 인구('90년 70.8명 → '22년 52.1명), 65세 이상('90년 159.8명 → '22년 137.1명)
 - ** 65세 이상 낙상에 의한 사망률(10만 명당): '84년 14.6명, '00년 33.0명, '10년 17.3명, '22년 20.0명
 - *** 낙상에 의한 사망률('22년, 10만 명당): 65~69세 9.8명, 70~74세 12.7명, 75~79세 18.6명,

80~84세 31.8명, 85~89세 51.4명

□ 교통사고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46.0%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으며,부상자 비율과 비교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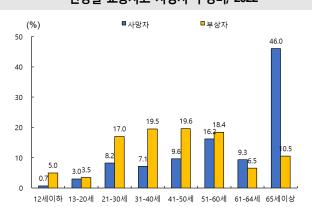
65세 이상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1984-2022



주: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 필요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주: 1)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를 집계함.

2) 부상자는 연령 '불명'을 제외하고 구성비 산정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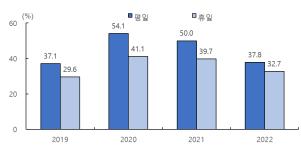
IV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은 '20년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이나,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코로나19 시기 모바일 콘텐츠 시청, 드라이브, 원예, 골프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함

[26~27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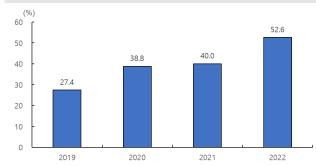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은 감소 추세(평일 '20년 54.1% → '22년 37.8%)
 이나,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20년 38.8% → '22년 52.6%)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의 비중 변화, 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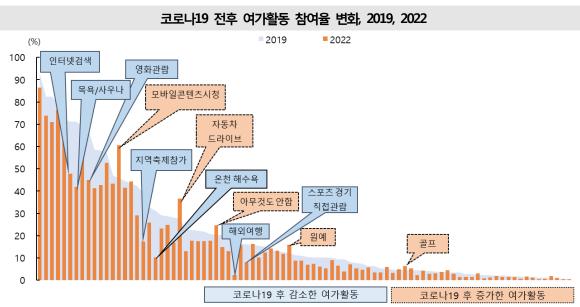
주: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주: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콘텐츠 시청, 자동차 드라이브, 원예, 골프의 참여율은 증가 ○ 반면, 목욕/사우나, 인터넷검색, 영화관람, 지역축제참가, 온천/해수욕, 스포츠 경기관람, 해외여행 등의 참여율은 '19년에 비해 '22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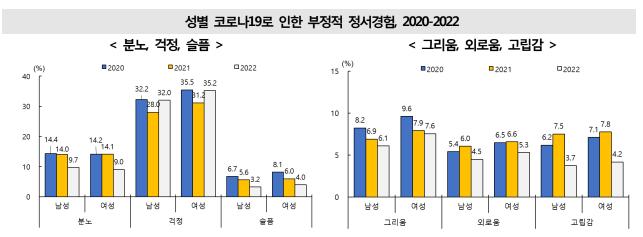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2) 2019년을 기준으로 여기활동 참여율이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 시기 악화된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경험은 '22년 점차 회복되는 추세,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비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20~'22년 지속적인 히락 추세

[28~29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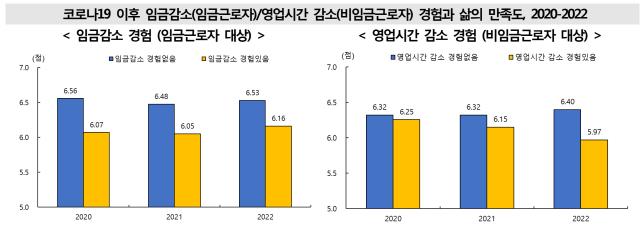
- □ 코로나19 시기인 '21년 삶의 만족도는 6.23점으로 '19년(6.29점)보다 감소 하였으나, '22년에는 6.28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
 - * 삶의 만족도(점): '19년 6.29점, '20년 6.29점, '21년 6.23점, '22년 6.28점
-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분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의 변화 패턴은 남녀가 유사함



주: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 □ 임금감소와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임금감소 경험자는 '20년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
- 영업시간 감소 경험자의 삶의 만족도는 '20~'22년 사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



- 주: 1) '임금 감소 경험'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상여 포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임금감소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 평균임
 - 2) '영업시간 감소 경험'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 평균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주요 결과

Ⅰ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1.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특히 '08~'22년 사이 20대 남성은 30.0%p, 여성은 25.4%p 감소함

- □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낮음
 - (성별) 여성 청년은 '08년 50% 수준에서 '22년 20대 27.5%, 30대 31.8%로, 같은 기간 남성 청년은 70% 수준에서 20대 41.9%, 30대 48.7%로 감소함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녀 모두 30대보다 20대의 감소폭이 큼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08년 대비 '22년 증감): 30대(남 21.0%p, 여 19.7%p), 20대(남 30.0%p, 여 25.4%p)
- □ '22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특히 60대 이상 에서 남성 74.9%, 여성 68.7%로 50대(남 60.0%, 여 45.5%)보다도 월등히 높음
 -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긍정적 태도가 낮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성별 격차: 20대 14.4%p, 30대 16.9%p, 40대 17.4%p, 50대 14.5%p, 60대 이상 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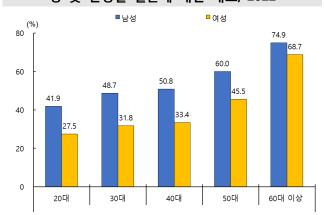
성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80 (%) 학생 20-29세 학생 30-39세 학생 20-29세 학생 30-39세 60 (52.9) 51.5 48.7 4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2)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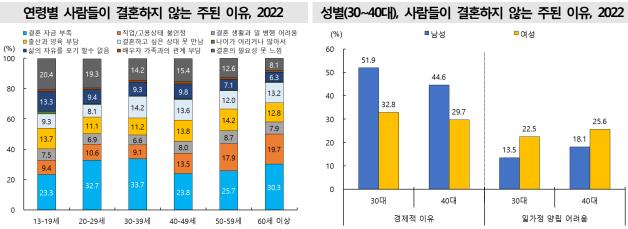
성 및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주: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응답은 중장년충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음
 - (연령) 50~60대 이상에서는 '직업이나 고용상태 불안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 30~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이유'는 남성이 높고,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여성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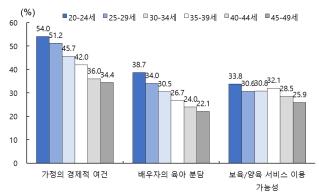
-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0개 항목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2) 경제적 이유는 '1=결혼 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혹은 '2=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 □ 30~34세 기혼 여성의 출산자녀는 '74년 3.01명, '94년 1.78명, '21년 1.12명으로 감소
 - '70~'80년대 이상자녀수('76년 2.76명)는 출산자녀수('76년 3.23명)보다 적어서 희망하는 자녀수보다 더 많이 출산하였으나 '90년 이후부터 역전됨
 - 20대의 출산결정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경제적 여건'은 50% 이상이며,
 '배우자의 육아분담',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30~34세 기혼여성의 이상 및 출산 자녀수, 1974-2021



출처: 한국보건시회연구원, 「전국 출신력 조사」, 1974-2018; 「가족과 출산조사」, 2021.

연령별 출산 결정시 고려사항, 2021



주: 통계치는 "시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2.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0]윤석, 서울시립대학교]

20~30대의 동거와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15~'20년 사이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으며,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54.4%로 높음

- □ 20~30대의 독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년 39.1%에서 '20년 47.7%로 증가
 -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년 25.9%에서 '20년 40.6%로 증가하여 독신 (8.6%p)보다 동거(14.7%p)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 더 크게 증가함
 - (전체 성인) 독신과 동거 모두 부정적 인식이 긍정보다 더 높음



- 주: 독신에 대한 태도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로, 동거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로 질문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며, '그렇다'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 □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년 27.7%에서 '20년 44.1%로 증가,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같은 기간 11.1%에서 20.6%로 증가
 - '20년 독신, 동거,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 미만인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4.4%로 높은 편
 - (전체 성인)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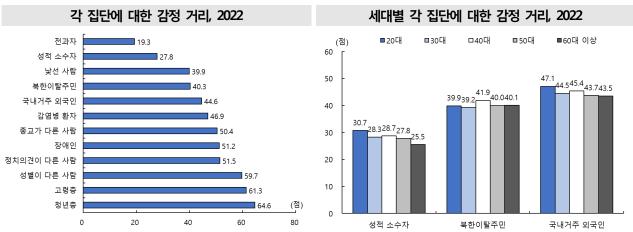
주: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2015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로,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로 질문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며, '그렇다'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3.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는 매우 낮으나 '13년 대비 소폭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는 외국인 이민·노동자보다 더 낮음

- □ '22년 집단별 감정거리는 전과자(19.3점)와 성적 소수자(27.8점)가 매우 낮으며,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청년층(64.6점)과 고령층(61.3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성별이나 정치의견이 다른 사람, 장애인, 타종교인은 5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북한이탈주민은 40.3점으로 외국인(44.6점)보다 낮음
 - (연령) 연령이 낮을수록 성적 소수자나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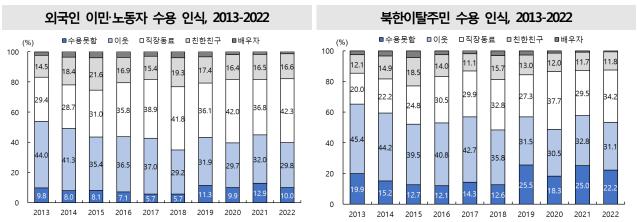
-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 (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한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음(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적으로 가까움).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
-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못함'의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13년 62.1% → '22년 55.9%),
 □ 직장동료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13년 7.9% → '22년 14.0%)은 증가 추세임
 - 전과자에 대한 포용은 가장 낮아 '수용못함'이 '22년 70.6%로 '13년 이후 비슷한 추세



-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 외국인 이민·노동자에 대한 '수용못함' 비율은 '16년 7.1%에서 '22년 10.0%로 증가 하였으며, 직장동료로의 포용은 '13년 29.4%에서 '22년 42.3%로 증가 추세임
 - 외국인 이민·노동자를 이웃/직장동료/친구로의 포용 비율은 '22년 88.7%임
 -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는 외국인 이민·노동자보다 낮아 '수용못함'이 '22년 22.2%였으며, 이웃/직장동료/친구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7.1%임
 - 직장동료로의 포용은 북한이탈주민이 34.2%로 외국인 이민·노동자보다 8.1%p 낮음



-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 장애인에 대한 포용 정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이웃/직장동료/친구로의 포용 비율은 92.9%이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2년 2.7%로 매우 낮음
 - 장애인 '수용못함'의 비율은 '22년 4.5%로 최근 증가 추세('13년 2.7%)
 -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포용 정도는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1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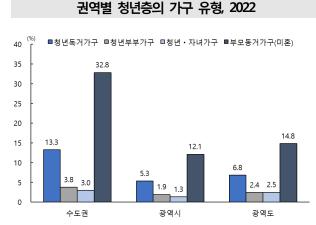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Ш

4.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진수, 광운대학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의 반지하/지하/옥상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도 낮은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 **19~34세 청년의 가구 유형**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가구가 59.7%로 가장 많으며, 청년독거가구(25.4%), 청년부부가구(8.1%), 청년과 자녀가구(6.8%) 순임
 - * 분석대상: 19~34세 청년을 가구주(독거, 부부, 청년과 자녀, 부모동거, 기타)와 비가구주(부모동거미혼, 부모 동거기혼, 기타)로 구분하고, 청년독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자녀가구, 부모동거(미혼)가구만 분석대상으로 함
 - 청년가구 중 수도권의 부모동거가구(미혼) 비율이 32.8%로 가장 높음
 - (주택유형) 청년독거가구는 연립다세대가 40~50% 정도로 높으며,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오피스텔 거주 비율도 32.4%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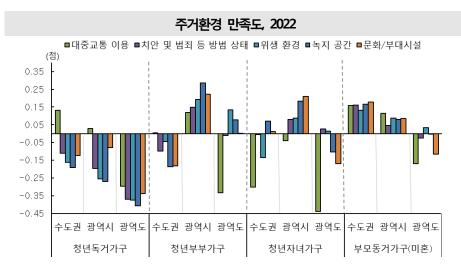


-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 2) 19-34세 청년이 속한 가구 중 청년독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과 자녀가구, 부모동거가구(가구주인 부모와 미혼청년) 만을 대상으로 함.
 -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포함.
-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 □ 반지하/지하/옥상의 거주 비율은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가 3.24%로 가장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부부가구와 부모동거가구도 1% 이상임

주택 위치별 비율(%), 2022												
	청년독거기구 청년북					7	청년자녀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반지하/지하 <u>옥상(옥탑)</u>	3.24	0.09	0.88	1.24	-	-	0.22	_	_	1.05	0.03	0.07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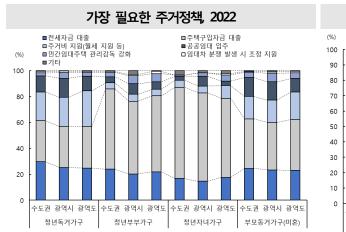
- □ 청년독거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광역도 지역 거주 청년**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낮음



주: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 항목의 청년가구유형 및 지역별 평균점수(5점 만점)를 각 항목별 평균점수의 차이로 계산한 것으로 (-) 값은 해당 항목의 평균값보다 낮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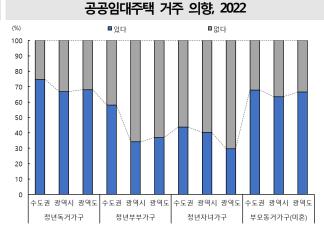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이 80% 이상**으로 높음
 -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0% 이상으로 높으며, 독거 및 부모동거 청년은 주거비 지워과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에 대해서도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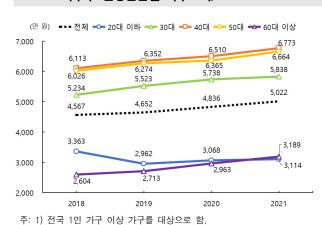
5.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18~'21년 기간 동안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감소하였고, 부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기했으며,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음

- □ (소득) 전체 가구소득은 '18년 4,567만 원에서 '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함
 - 60대 이상의 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22.5% 증가하여(2,604만 원→ 3,189만 원),
 '21년에는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음
 - * '18년 대비 '21년 소득 증감률: **20대 이하(-7.4%)**, 30대(11.5%), 40대(10.8%), 50대(10.6%), 60대 이상(22.5%)
 - (소득원천별)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근로소득의 증가가 적고,
 사업소득의 증가폭이 크며,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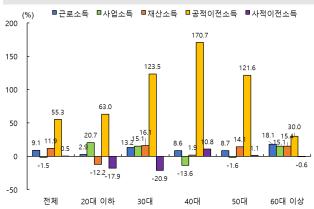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2018-2021



-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 2) 소득은 면기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석이신 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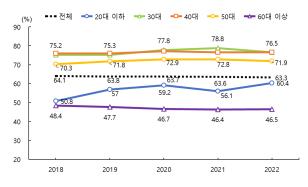
가구주 연령집단 및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률,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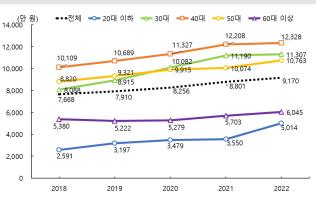


-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 2) 원천별 소득은 평균값 기준임.
 - 3) 소득 증감률은 2018년 대비 2021년 원천별 소득의 증감률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 (부채) 전체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18년 64.1%에서 '22년 63.3%로 큰 변화가 없으나 20대 이하에서는 같은 기간 50.8%에서 60.4%로 9.6%p 증가함
 - (연령)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30대와 40대가 '22년 76.5%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은 46.5%로 가장 낮고 '18년 대비 1.9%p 감소함
 -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짐
 - 특히 20대 이하의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가율은 93.5%임
 - 30대는 '18년 8,088만 원에서 '22년 11,307만 원으로 증가해 40대 다음으로 높음
 - * '18년 대비 '22년 부채보유액 증감률: **20대 이하(93.5%)**, 30대(39.8%), 40대(22.0%), 50대(22.0%), 60대 이상(12.4%)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 2018-2022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보유액,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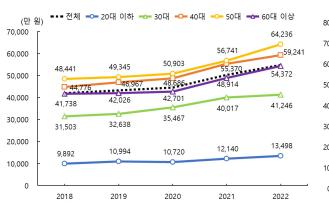
주: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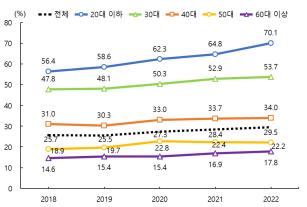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 (자산) '18년 대비 '22년 20대 이하의 자산 보유액 증가율(36.5%)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부채 증가율(93.5%)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 '18년 대비 '22년 자산 증감률: **20대 이하(36.5%)**, 30대(30.9%), 40대(32.3%), 50대(32.6%), 60대 이상(30.3%)
 - 20대 이하의 자산보유액은 가장 낮으며, '18년 9,892만 원에서 '22년 13,498만 원으로 3,606만 원 증가에 그침
 -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대에서 높음
 - * 자산은 실물자산(부동산, 자동차, 기타실물자산)과 금융자산(저축액, 전월세 보증금)으로 나뉨
 - 20대 이하의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은 '22년 70.1%로 '18년 대비 13.7%p 상승하였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5.9%p 상승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보유액, 2018-2022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018-2022





-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 3) 금융자산은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기타 저축)과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 (순자산) '18년 대비 '22년 40대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32% 이상 증가하였으나,20대 이하는 16.2%, 30대는 2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자산 증가율을 보임
 - * '18년 대비 '22년 순자산 증감률: **20대 이하(16.2%)**, 30대(27.9%), 40대(35.3%), 50대(35.0%), 60대 이상(32.9%)

Ⅲ 건강, 교육·훈련, 노동, 범죄·안전 영역

6.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병원수와 병상수가 많지만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적은 편소이청소년과의 경우 비수도권이 적으며,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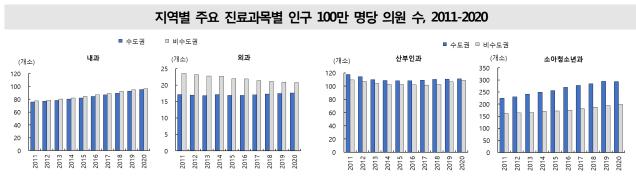
- □ '20년 일반병・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인구 100만 명당 44.5개로 수도권(28.0개)보다 더 많음
 - 반면, 의원은 '20년 수도권(681.0개)이 비수도권(596.5개)보다 더 많으며, 의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임
 - * 의원수 지역간 격차 '11년 58개(수도권 578.1개, 비수도권 520.1개) → '20년 84.5개(수도권 681.0개, 비수도권 596.5개)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수, 2011-2020 의원 종합병원.병원 (개소) (개소)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50 700 40 600 30 500 400 20 300 200 10 1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20 2019 2011 2014 2020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2 2017 2018 2019 2017 201 201 비수도권

- 주 :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 □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고('20년 수도권 293.9개, 비수도권 198.6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11년 이후 더 확대됨
 - * 소이청소년과(인구 100만명당): 수도권('11년 224.6개 → 20년 293.9개), 비수도권('11년 161.8개 → 20년 198.6개)
 - 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 간 격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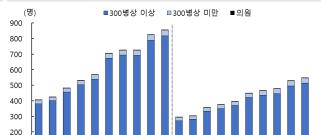


- 주: 1) 진료과목은 의원의 표시과목으로 의사의 전문과목과 다름.
-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3) 이구는 가 여도만 주미트로이고 기존이 이구다 이외 수 사추 시 내고 및 이과는 저체
-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인구당 의원 수 산출 시 내과 및 외과는 전체 인구, 산부인과는 15-49세 여성 인구, 소아청소년과는 0-19세 인구를 적용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 □ 종합병원과 병원의 **병원수와 병상수**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는 수도권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년 일반 병·의원 병상수(인구 1,000명당): 수도권 5.8개, 비수도권 8.8개
 - ** '20년 의료인력싞'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도권 211.5명 비수도권 169.1명) 간호사(수도권 369.0명, 비수도권 351.5명)
 - ㅇ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모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





2019

2013

비수도권

2011

2017

수도권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당 간호사수, 2011-2020

주: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 및 간호사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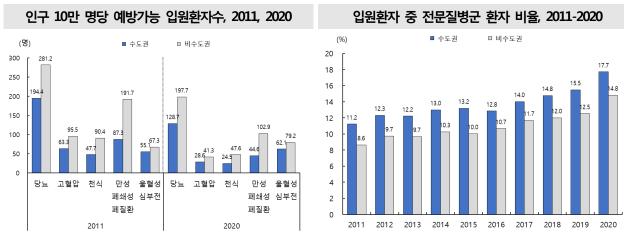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 예방가능한 입원환자수는 비수도권에서 더 높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100

2011

- 일차의료 분야(의원)에서의 불충분한 외래서비스와 병상 과잉공급이 비수도권에서 예방가능 입원환자수가 많은 것과 연계될 수 있음
- 난이도가 높은 전문질병군 입원환자는 수도권(17.7%)이 비수도권
 (14.8%)보다 더 높음



- 주: 1)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는 양질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통해 입원의 위험이 감소되는 질환(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를 성 및 연령 보정한 값임.
 - 2) 전문질병군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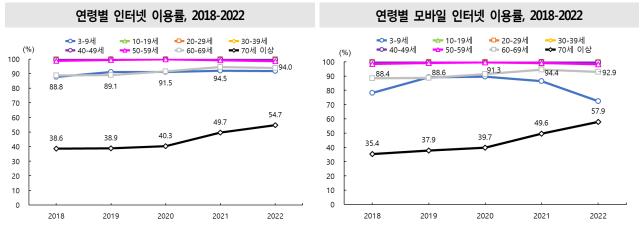
3) 지역은 환자 거주지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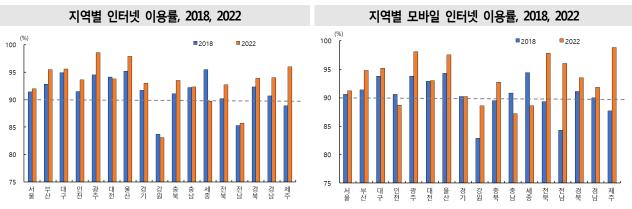
7.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 정보화 이용 능력은 '접근' 수준보다 '역량' 수준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고령층과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은 **'22년 93.0%**이며, '17년부터 90%를 상회함
 - * 인터넷 이용률: '00년 44.7% → '05년 72.8% → '10년 77.8% → '15년 85.1% → '17년 90.3% → '22년 93.0%
 - (연령) 10~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 정도이고, 70세 이상은 '22년
 54.7%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크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7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20년 이후 급격히 증기('20년 40.3% → '22년 54.7%, 14.4%p),
 특히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폭이 더 큼('20년 39.7% → '22년 57.9%, 18.2%p)



- 주: 1)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인터넷(이동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 □ (지역) '22년 기준 광주, 울산, 제주, 대구, 부산에서 95.0% 이상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며, 고령층이 많은 강원과 전남은 각각 83.1%, 85.7%로 낮음
 -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2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지역인 강원과 전남도 각각 88.6%, 9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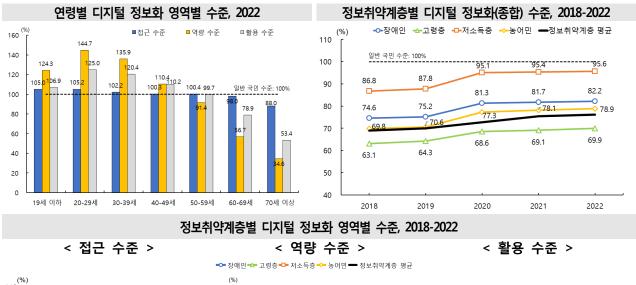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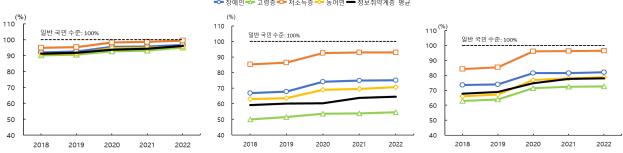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 ↑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40대 이하는 일반국민 수준을 상회**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고, 특히 역량 수준이 낮음
 - 정보화의 '접근' 수준은 70세 이상에서 일반국민의 88%로 높은 편이나, 이용 능력인 '역량' 수준은 60~69세 56.7%, 70세 이상은 34.6%로 낮음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접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측정(인터넷 상시 접속,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 역량: 컴퓨터, 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 (환경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전송, 자료작성 등)
- 활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 □ (정보취약계층) '22년 55세 이상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평균 대비 69.9%로 **가장 낮고**, 농어민(78.9%), 장애인(82.2%), 저소득층(95.6%) 순으로 낮음
 - * 정보취약계층 : 장애인(등록 장애인), 고령층(5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 '접근' 수준은 일반국민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취약계층 간 격차도 적은 편
 - '역량' 수준은 접근이나 활용수준에 비해 낮고, 취약계층 간 격차도 가장 큼
 - '활용' 수준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모두 '20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19년→'20년): 접근(91.7%→'93.7%), 역량(60.2%→60.3%), 활용(68.8%→74.8%)





-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 2) 인프라 및 기기보유 여부를 '접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은 '역량', 인터넷 이용률/서비스 다양성/인터넷 심화활동을 '활용'으로 정의함
 - 3)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4) 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은 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은 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자소득층'은 전국 만 7~74세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은 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8.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17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사고사망자는 감소 추세임 '21년 기준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54.0%)으로, 특히 5인 미만 건설업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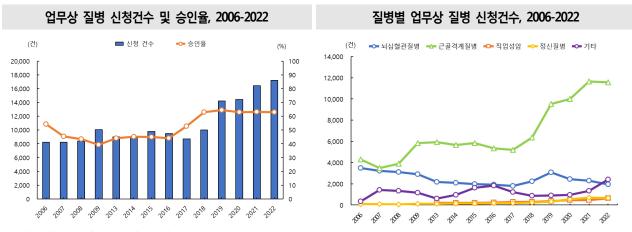
□ 요양재해율은 '01년 0.77%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22년 0.65%이며, 사망만인율(근로자1만명당은 같은 기간 2.6명에서 1.1명으로 감소



-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100.
 - 2)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10,000.
 - 3)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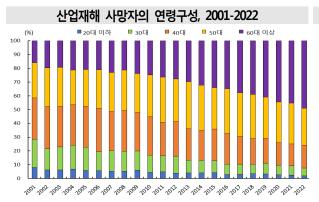
- □ 재해판단범위의 확대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높아짐**('16년 44.1% → 22년 62.9%)에 따라 **질병사망자수는 증가 추세**이나 사고사망자수는 '01년 이후 감소 추세
 - 고령 근로자의 증가로 근골격계 질병이 증가 추세이며, 기타질환의 '20년 이후 증가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청건수 증가가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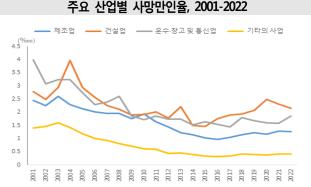


- 주: 1) 승인율 = (승인 건수 ÷ 신청 건수) × 100.
 - 2) '기타'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레이노증후군, 세균성질병, 간질병, 기타 등이 포함됨.
 - 3) 2010~2012년은 자료 없음.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각 연도.

- (연령) '01년 재해사망자의 연령분포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16~30% 내외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40대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 60대 이상에서는 증가 추세임
 * 재해 사망자('01년→'20년): 20대 이하(7.9%→2.0%), 30대(20.5%→5.7%),
 - 40대(30.0% → 16.6%), 50대(25.5% → 26.8%), 60대 이상(16.0% → 49.0%)
- □ (산업)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사망만인율이 높고,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에서 낮은 편이며, '15년 이후 건설업에서 증가 추세가 높게 나타남





주: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신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10,000. 출처: 고용노동부,「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 (산업 및 규모) '21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의 74.3%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50.4%, 특히 5인 미만 건설업에서 23.1%가 발생함

	ł	산업 및 사업	체 규모별 시	고사망 재해?	다 분포(%), 2	2021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건설업	23.1	7.1	9.4	2.3	2.3	3.4	2.8	50.4
제조업	5.1	3.0	5.6	2.7	2.1	2.1	1.8	22.2
기타의 사업	4.6	2.8	3.9	1.1	1.2	0.8	0.5	14.9
운수창고 및 통신업	3.4	1.1	1.9	0.2	1.0	0.4	0.7	8.7
그 외 업종	2.3	0.5	0.6	0.4	_	0.1	_	3.9
<u>합</u> 계	38.4	14.5	21.4	6.6	6.5	6.8	5.8	100.0

- 주: 1) 전체 사고사망 재해자 중 해당 산업 및 사업체규모의 사고사망 재해자의 비율임 2) '그 외 업종'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됨.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1.
- □ (연령 및 근속기간) '20년 기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서 사고사망자수가 가장 많고(62.7%), 이 중 50대 이상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47.2%임
 -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40대 이상인 사고사망자 493명 중 72.6%는 건설업 종사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고사망 재해자 분포(명, %), 2020											
	6개월	미만	6개월-1년	1–3	년	3-{	5년	5년 ())상	합	계
20대 이하	27	(3.1)	6 (0.7)	8	(0.9)	1	(0.1)	_	_	42	(4.8)
30대	33	(3.7)	5 (0.6)	16	(1.8)	5	(0.6)	5	(0.6)	64	(7.3)
40대	77	(8.7)	19 (2.2)	16	(1.8)	9	(1.0)	16	(1.8)	137	(15.5)
50대	179	(20.3)	25 (2.8)	29	(3.3)	18	(2.0)	41	(4.6)	292	(33.1)
60대 이상	237	(26.9)	24 (2.7)	40	(4.5)	16	(1.8)	30	(3.4)	347	(39.3)
전체	553	(62.7)	79 (9.0)	109	(12.4)	49	(5.6)	92	(10.4)	8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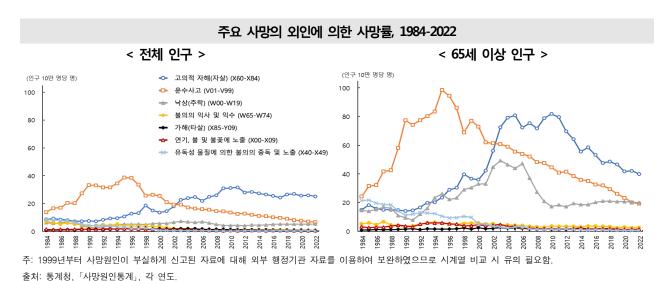
주: ()은 비율로 전체 사고사망 재해자 중 해당 연령 및 근속기간 사고사망 재해자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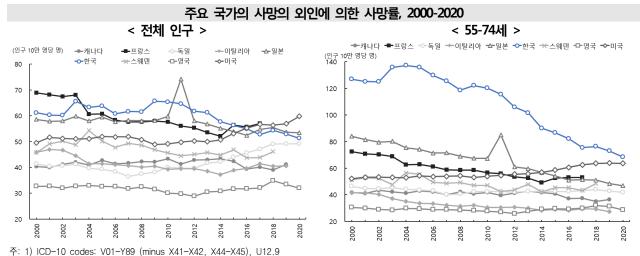
9.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낙상에 의한 시망률은 65세 이상에서 최근 증가 추세이며 고령일수록 더 심각함 고령자 교통사고 시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지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에서 낙상에 의한 사망률은 최근 증가 추세
 - * 사망의 외인 사망률(10만 명당): 전체 인구('90년 70.8명 → '22년 52.1명), 65세 이상('90년 159.8명 → '22년 137.1명)
 -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층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
 - * 65세 이상 낙상에 의한 사망률(10만 명당): '84년 14.6명, '00년 33.0명, '10년 17.3명, '22년 20.0명
 - ** 낙상에 의한 사망률('22년, 10만 명당): 65~69세 9.8명, 70~74세 12.7명, 75~79세 18.6명, 80~84세 31.8명, 85~89세 5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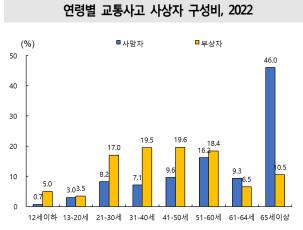


□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최근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55~74세는 '04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임



²⁾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로서 국내 통계청 공표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출처: WHO Mortality Database Portal, 2023.

- □ 교통사고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46.0%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으며,부상자 비율과 비교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사망외인 중 자살은 남성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 '22년 자살률(10만 명당): 전체 인구(남성 35.3명, 여성 15.1명), 65세 이상(남성 65.0명, 여성 2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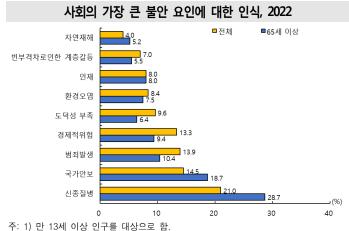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를 집계함. 2) 부상자는 연령 '불명'을 제외하고 구성비 산정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 고령층이 인식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이 2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가안보**가 18.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전체 평균 대비 고령층은 자연재해는 더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성 부족, 경제적 위험,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22년 27.0%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하였으며, '18년 이후부터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임



 다. 1) 전 13세 이상 단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주된 응답 결과임(기타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12년 이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지 않음' 또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IV

10.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은 '20년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이나,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코로나19 시기 모바일 콘텐츠 시청, 드라이브, 원예, 골프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함

-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는 '20년 3월 5.58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22년 12월 4.05점까지 낮아졌으며, 사회 및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일상생활 중 '사회 및 여가활동' 방해 정도는 '20년 3월 6.88점, '22년 3월 6.26점, '22년 12월 4.91점으로 낮아졌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음
 -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1년 86.5%에서 '22년 70.0%로 감소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 2020.3-2022.12

주: 각 항목에 대해 '전혀'(0점), '악간'(1-3점), '어느 정도'(4-6점), '상당히' (7-9점), '매우 많이'(10점)라고 응답한 값의 평균 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발표, 각 분기.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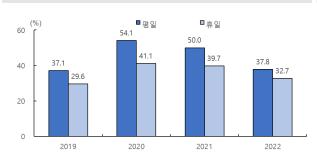


주: 1) 본 문항은 2021년 이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2)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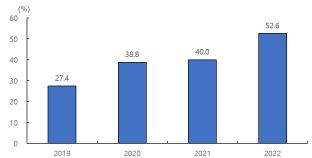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은 감소 추세(평일 '20년 54.1% → '22년 37.8%)
 이나,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20년 38.8% → '22년 52.6%)

스마트 기기 활용 여가시간의 비중 변화, 2019-2022



주: 각 연도별 조시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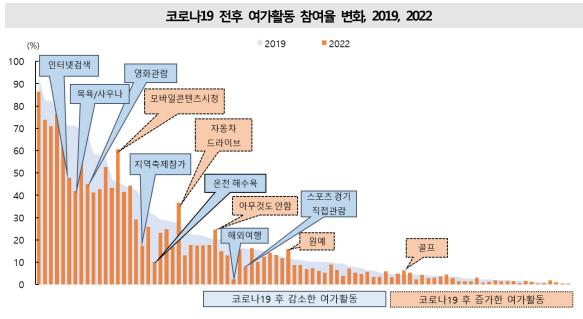
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주: 각 연도별 조시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콘텐츠 시청, 자동차 드라이브, 원예, 골프의 참여율은 증가

- 여가활동 참여율은 '19년과 비교해 '22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모바일 콘텐츠 시청(14.9%p), 자동차드라이브(9.1%p), 원예(3.7%p), 골프(1.8%p) 등의 여가활동은 '19년보다 증가하였음
 - '아무것도 안하기'의 비율도 '22년 24.6%로 '19년(20.3%)보다 증가함
- 반면, 목욕/사우나(-29.3%p), 인터넷검색(-23.3%p), 영화관람(-22.5%p), 지역축제 참가(-21.8%p), 온천/해수욕(-20.9%p), 해외여행(-14.5%p) 등은 '19년에 비해 감소
 - 감소한 활동 대부분이 집합시설 및 모임이나 관광과 관련된 여가활동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부 여가활동은 서서히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
 - * 프로스포츠 경기당 관중수('21년 → '22년) : 야구(1,937명 → 8,648명), 축구(1,382명 → 3,148명)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당 평균 관중수)
 - ** 해외여행객수: '19년 2,871.4만 명 → '21년 122.3만 명 → '22년 655.4만 명 → '23년(5월말까지) 815.9만 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2) 2019년을 기준으로 여기활동 참여율이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방: 삶의 만족, 정서경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한준, 연세대학교]

코로나19 시기 악화된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경험은 '22년 점차 회복되는 추세,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비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20~'22년 지속적인 히락 추세

- □ 코로나19 시기인 '21년 삶의 만족도는 6.23점으로 '19년(6.29점)보다 감소 하였으나, '22년에는 6.28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
 - * 삶의 만족도(점): '19년 6.29점, '20년 6.29점, '21년 6.23점, '22년 6.28점
 - ㅇ 이는 객관적 상태의 개선과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에 적응한 결과
 - (성별) 남녀 모두 '21년 감소했다가 '2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커서 '22년 남성보다 0.04점 더 낮음
 - (연령) 10대에서 20대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소폭 낮아진 후 30~40대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
 - 20대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1년에 삶의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짐

성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 2019-2022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 2019-2022 (점) 6.7 ^(점) -2019 -2020 -2021 -2022 ---여성 ➡ 남성 6.8 6.56 6.54 6.6 6.45 6 6.45 6.37 6.6 6.4 6.28 6.18 6.5 6.2 6.0 6.30 6.02 6.30 5.8 6.3 6.25 6.30 6.29 6.28 5.6 6.2 6.22 5.4 6.1 5.35 5.2 6.0 2019 2020 2021

주: 삶의 만족도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했을 때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 (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최악의 상태'-'10=최선의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25차)」, 원자료, 각 연도.

-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분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 변화 패턴은 남녀가 유사함
 - '분노', '슬픔', '그리움'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점차 감소 추세임
 - '걱정'은 '21년 감소하였다가 '22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은 '21년까지 증가하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22년 감소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 2020-2022

< 분노, 걱정, 슬픔 > <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 (%) 15 r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40 35.5 35.2 322 32.0 30 10 6.5 6.6 14.2 14.1 5.4. 20 14.4 140 5 10 0 여성 여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걱정 슬픋 그리움 고립감 외로움

주: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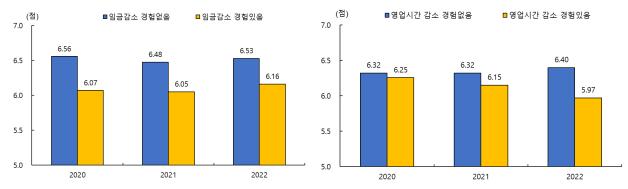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 □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변화를 보면 임금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는 '20년 11.4%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22년 3.5%로 낮아짐
 - 반면,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비임금근로자는 '20년 25.7%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22년 14.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임
 - * 임금 감소('20년 11.4%->'21년 6.1%->'22년 3.5%), 영업시간 감소('20년 25.7%->'21년 20.5%->'22년 14.3%)
- □ 임금감소와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임금감소 경험자는 '20년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
 - **영업시간 감소** 경험자는 **삶의 만족도가 '2**0년 6.25점에서 '22년 5.97점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점차 하락하는 추세**

코로나19 이후 임금감소(임금근로자)/영업시간 감소(비임금근로자) 경험과 삶의 만족도, 2020-2022

< 임금감소 경험 (임금근로자 대상) >

< 영업시간 감소 경험 (비임금근로자 대상) >



- 주: 1)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직장, 아르바이트 등) 대상임.
 -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고용주, 가족종사자) 대상임.
 - 3) '임금 감소 경험'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상여 포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임금감소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 평균임.
 - 4) '영업시간 감소 경험'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 평균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부록.「한국의 사회동향 2023」영역별 논문제목 및 집필진

영역	원고 제목	집필진				
017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인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가구 [.] 가족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김여진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육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송수연 (차의과학대학교 차오름교양대학)				
훈련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기하기 (14 OFU하다 기념하다)				
노동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소비·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금융 경제학과)				
자산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거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 고진수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안전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사회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ULO (1171/11=1-1-7-1017-1-1-1)				
통합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주민적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L Z (MUIDIEL 2 11-1-1-1-1)				
웰빙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 경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